

# 이 시대를 비추는 '영화읽기'의 매력

감독론·제작이론 등 이론서에서 비평서까지 다양

영화는 이 시대의 테마요,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읽는다. 정치와 이데올로기도 예외는 아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세계는 가끔 우리의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뼈뼋하게 보기를 강요하고, 때로는 그걸 왜곡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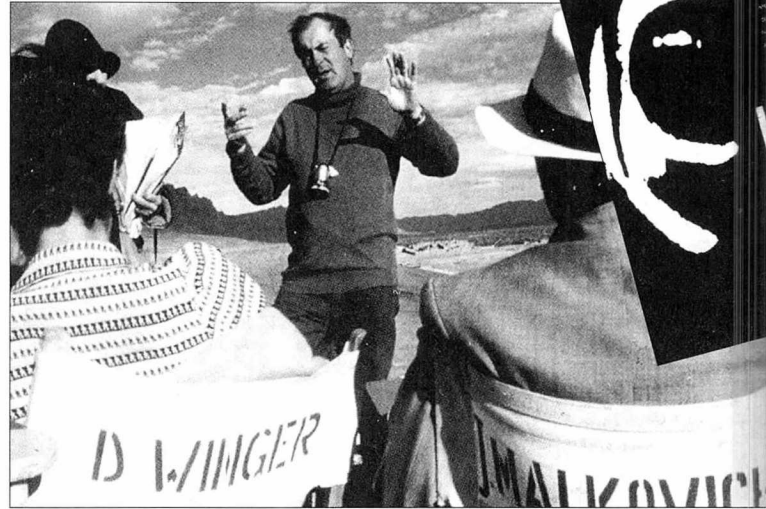
## 영화와 정치의 관계

《카메라 폴리티카》(마이클 라이언 외 지음, 백문임 외 옮김, 시각과언어)는 영화와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 조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사관과 신사》에 대해 '길 들여지지 않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던 몰락한 터프 가이' 리처드 기어와 신사로 변한 리처드 기어 사이의 차별점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전자는 군부와 같은 전통적인 제도에 불만을 품으며 성장한 젊은 세대를 표상하지만, 잘 다듬어진 리처드 기어로 결론을 맺는다. 이 영화는 현대 미국사회에서 우익이 추동한 변형에 대한 알레고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가 군부를 강화하는 데 성실하게 헌신했다는 뜻이다. 최근에 발행된 하권에서는 신

비주의, 베트남과 신군국주의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를 통해 보이는 사회 제문제들을 살펴본다.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영화를 대하면 또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미지의 명감독》(김영진 지음, 한겨레신문사)과 《세계영화 기행 2》(조재홍 외 지음, 거름)가 그런 책이다. 《미지의 명감독》은 영화주간지 《씨네 21》에 연재됐던 글이라 쉽고 재미있다. 저자는 여기 실린 감독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세가지로 간추린다. 그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선정된 이들은 영화 탄생 100년이 지난 자리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미지'의 감독들이다. 일종의 감독론을 엮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저자의 소망대로 이 책은 '영화보기의 너비와 깊이를 슬쩍 엿보게 해주는 썩은 읽을거리'이다.

지난해 1권을 내고 이번에 새로 2권이 모습을 보인 《세계영화 기행》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한 영화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꾸민 것. 미국이나 유럽 일변도의 영화읽기에서 일본, 라틴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의 영화 역사와 최근 경향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되지 않은 영화들도 소개하고 있어서 제



영화촬영을 지휘하고 있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라틴 아메리카 해방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 <불타는 시간> 포스터.

작과 관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했다.

## 영화개념과 제작과정도 소개

대중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영화학도들에게는 유용한 책들도 여럿 있다. 그중에서 《영화사전》(수잔 헤이워드 지음, 이영기 옮김, 한나레)은 영화에 차용되는 여러 개념들, 예를 들면 재현, 수용자 이론, 서사론 등 현대적인 인문학의 사유방식과 함께 기호학이나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등의 개념들이 형성되고 전개되면서 생긴 논쟁들을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함께 담고 있다. 또한 저자는 영화의 주요 장르들과 영화운동 및 사조, 민족영화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영화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산업이다.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제이슨 E. 스퀘어 지음, 강인형 옮김, 길벗)을 보면 그 말이 더 실감난다. 이 책은 영화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작성, 각종 계약, 촬영·배급과 마케팅, 극장 상영까지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모든 단계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가 주먹구구식 제작 방법으로 한계상황을 드러내는 반면 미국은 독립영화만도 예산서가 1백장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체험담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접해볼 만한 책이다.

영화촬영에 관한 실체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영화 촬영술》(블라디미르 닐센 지음, 홍기선 옮김, 민음사)은 아주 세세하다. 카메라 워크를 중심으로 쇼트, 시나리오, 영화 촬영에 꼭 필요한 창조적인 문제들을 생동감있게 제시하고 설명한다. 초기 소비에트 영화인들의 생생한 숨결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영화를 본다는 행위는 소비문화사회의 암증을 모색하는 계기판이다. 하지만 영화를 책으로 읽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낯설고 어설피다. 그 주제나 소재 또한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고, 저자들의 글쓰기 또한 대중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 영화가 계속되는 한 영화읽기를 시도하는 책들 또한 끊이지 않을 듯하다. <이성수>

## 책의 출간

#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평의 시각

서강대출판부 펴냄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시리즈



서강대출판부가 기획한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시리즈가 1차분 15권으로 완간됐다. 우리나라 시인·소설가 등의 작품세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평문들을 집중적으로 모은 작가론·작품론집 시리즈다. 첫권 서정주 시인을 비롯해 김소월·이육사·정지용·박두진·이상화·한용운·김영랑·윤동주·이상 등 시인 10인과 김동리·이효석·황순원·박경리·이문열 등 소설가 5인의 작가에 대한 다층다의적인 논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해당작가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준다.

《서정주》(박철희 편)에는 일제말부터 자

유당 시절을 거쳐 유신과 5공에 이르기까지 개인사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노련한 언어구사'는 독창적인 민중문학을 일군 '명장의 세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실었다. 《김소월》(김학동 편)에는 한국적 한의 정서를 근대적으로 변용한 시인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한 글이 여러 편 실렸다.

또 '한국소설의 원점'이라고도 불리는 《김동리》(이재선 편)의 작품론으로는 신화비평의 입장에서 해부한 김병옥의 글, 김동리의 휴머니즘을 논한 이태동의 글 등에서 해석에 원용된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밖에 각 권에 실린 주의 깊은 비평과 서로 다른 해석의 글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작가를 재평가하는 새로운 비평시각을 제공해준다. ◆

서강대출판부/A5신/각 260면 내외/ 각 5000원